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들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순천시민의 이동권 책임지는 '대중교통의 파수꾼'

유한회사 영일운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정비 강화·정신교육 실시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성장 견인해

유한회사 영일운수는 순천을 기반으로 날로 사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택시회사다. 지난 1980년 창사해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다. 지난 세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굳건한 위치를 확보해 순천지역에서는 가동대수 최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순천시민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일운수의 지향점은 안전하고 친절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영일운수는 순천시민의 발로써 순천시 교통인구 일정량의 수송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다.

고객들을 찾아 하루종일 순천시내 곳곳을 살살이 헤집고 다니면서도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전국 어느 회사에 견주어도 뒤질 것이 없는 영일운수 소속 택시들

고객의 안전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친절한 서비스다. 운수업체의 특성상 안전과 친절할 서비스는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뛰어난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의 양호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차량 보유대수 58대에 직원수 70여명.

택시업계에 있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직원 이직률이 심한 것은 영일운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영일운수는 여타 업체에 비해 기사 수급에 있어 애로가 적은 편이다. 장기근속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기사들의 피로도는 낮춰 사고율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무리하지 않는 근무여건은 과로를 피할 수 있는 절경이다.

영일운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동종업계 타 회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다.

매일 3째주 화, 수, 목요일에 실시되는 사내 안전교육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기사들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현장경험식 VTR상영 등 조별 간담회를 통해 성과를 고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기회를 통해 직원 상호간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이다보니 친절교육은 기본이고 운전자의 건강이 곧 승객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불철야유회와 함께 휴양을 위한 유급휴가는 애사심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운수업체에서 정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영일운수는 회사 인근 정비업소와 전속으로 서비스계약을 맺고 완벽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영일운수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는다면 부명경영을 꼽을 수 있다. 회사 경영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원들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상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명경영과 더불어 우진택시가 지



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한 견인차는 역시 안정된 노사 관계를 꼽을 수 있다. 노사 상생을 통한 화합을 밀거를 삼아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일운수는 앞으로도 전 종사원이 여타 대중교통수단과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서비스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 내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수업이다 보니 고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고객 친절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순천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같은 존재인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대명사 영일운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용자는 노동자를, 노동자는 사용자를 헤아리는 배려의 마디가 넘쳐 순천시민들과 함께 순천을 지키는 대중교통의 파수꾼이 될 것임을 확인한다.

최남규 기자/순천 김승호 기자



“직원들 삶의 질 향상 위해 관심 기울일 것”

김석구 대표이사

▶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은지 속내를 공개한다면

-기사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 극복이 쉽지 않다.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지만 속깊은 정은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다.

▶ 업종의 특성상 안전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텐데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는 운수업 종사자에게 필수 덕목이다. 안전이 곧 나와 가정을 지키는 절경이고 그것이 곧 회사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안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기사들에 대한 처우 정도가 곧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사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만큼은 잡념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



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나름의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직원들과의 유대강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산행이나 체육대회 등을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한다. 사내에서 하지 못했던 소통도 이같은 행사를 매개로 보다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젊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깊이있게 알아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맑은 바 직무에 열성을 다해 임해준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회사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안전운행을 바란다.

“회사와 더불어 발전하는 노동조합 만들 것”

박용규 노조위원장

▶ 조합원의 안전운행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조합원의 안전운행이 곧 대시민 서비스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운행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뛸 수 있으면 사소한 시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회사와 노조의 관계는

-사측의 조합원을 위한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처우개선과 인격적인 대우는 우리 회사가 오늘날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노사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회사측의 인간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노사간 화합의 밑천이 되고 있다.

▶ 노조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원칙이 있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실리를 택한다는 기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우리의 열린 노동운동에 회사가 열린 경영으로 화답해와 원만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회사가 하는 일에 어긋남만 놓는 구시대적인 노동운동은 이제 설 땅이 없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돕는 노사를 꿈꾼다.



▶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사랑이나 자부심은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로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보니 애사심은 절로 생겨나는 것 같다.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힘이다. 회사와 늘 교감을 갖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매년 불철야유회, 하계 휴양, 창립체육행사 등을 통해 일체감과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이같은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유대감이 돈독해 지는 것을 확인하게 느낄 수 있다. 동질감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합원간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회사와 상의해 방법을 모색하겠다.

최남규 기자